

최연희의 춤



I. 하얀배 A White Boat

인간의 삶을 흔히들
긴 항로를 지나가는 배에
비유하기도 한다.
나의 삶은 그 항로의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아직도 가야할 먼 여정의 척박한 삶,
그 척박한 삶의 구원과 동경에 대한
먼 그리움, 환상의 구도 여행을
승무의 긴 장삼 소매자락이
공간에 뿌려지는 모양새가
마치 신비스러우며 자유스러움과
환상적인 형상을
파문을 이는 듯한 초월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얀배의 이미지로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 초연_ 1998년 | 안무·출연_ 최은희 | 음악편집_ <Breating out><Healing Seas> - Shamens Dream, <Salrel circle> - TULK

II. 음악과의 만남 An Encounter with Music



보르딘의 현악 4중주를 위한 아상곡 (concerto grosso string Quartet No.2)

4악장 형식의 곡으로 오늘의 무대에서는 투명하고 신선하게 펼쳐지는 제1악장에서는 연주만을 위주로 하였고 제3악장은 보르딘이 아내에게 바친 곡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나누는 달콤한 대화형식으로 작곡된 곡에 맞추어 독무로 구성하였다.
마치 꿈결처럼 다분히 동양적 시정이 넘치는 음악을 창출하고 있어서 한국춤이 갖는 자연스러운 호흡과 정서, 섬세한 발디딤새들 몸짓이 잘 어울려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초연 2004년 | 안무·출연 최은희 | 제 1악장 Allegro moderato, 제 3악장 Notturmo : Andante | 특별연주_ 뮤즈 현악 4중주단(Vn I: 임병원, Vn II: 황지원, Va: 최영화, Vc: 김판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향 제10번」(HYANG X for solo violin)

「향」은 두 개의 한자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고향'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소리'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소리로서 고향의 인생을 표현한 것으로 한국의 민요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전체 세계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제1악장 전경(全景), 제2악장 향수(鄉愁), 제 3악장 풍요(豊饒)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에 맞추어 각 장별의 이미지에 맞게 2인무로 구성되어 전원적 인상으로 표현하였다.

- 초연 2004년 | 특별연주_ 임병원 | 작곡_ 임우상 | 안무_ 최은희 | 출연_ 하연화, 신은주



특별연주_ 임 병원(경성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하연화



신은주

Ⅲ. 영혼의 번제 Soul On the Altar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숙명의 벼랑과
거부할 수 없는 천길 삶의 단애에서 목숨으로 추는 한바탕의 춤이다.
만남과 이별, 사랑과 미움, 희망과 좌절이 회오리 친다.
허공중에 흔들리는 연약한 두팔, 한갓 나뭇잎 같은 존재일지라도
가슴에 더운 피 화산처럼 솟구치고
더운피 식히며 태단은 고요한 절제의 춤,
찬란한 태양은 피스톨 속에 태양 꽃을 피우고
마침내 온 영혼을 제단에 올려 번제하는 찬란한 범열을 몸으로
표현해 보았다.

(번제: 구약시대의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의 한가지를 의미함)

● 초연_1996 | 글_장정임 | 안무·출연_최은희 | 음악_Stephan Micus 「Darkness and Light」